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3〉품종 개량으로 소득 증대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는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편집자주〉

신품종으로 생산량 150% 이상 늘어

광양동부농협…양상추 품종 개선사업

조합원 2000개 비닐하우스
하우스당 8kg 250상자 출하
수익성 늘어나자 젊은층 유입

문정태 광양동부농협 조합장(사진 왼쪽)이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시설하우스에서 신품종 양상추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인근 섬진강을 따라 가다보면 들판을 빼곡히 채운 비닐하우스가 눈 앞에 펼쳐진다. 해가 지고 달빛 아래 비치는 비닐하우스는 언뜻 바닷 물결을 연상케할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광양의 젊은 농부들을 먹여살리는 양상추 재배 단지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식욕을 돋우는 양상추는 광양의 대표적 농산물. 지난해 기준 광양지역에서 120개 농가가 1만 5830 t 을 생산하는 등 인접한 하동과 함께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광양동부농협도 양상추 재배 농민들이 조합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양동부농협 관할 지역 농가에서만 2000개 비닐하우스를 통해 하우스당 8㎏짜리 250상자를 생산,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수익성이 확보되면서 젊은층이 모두 떠나 나이 든 어르신들만 머물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 농부들이 많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광양동부농협이 '1농협 1대표사업'으로 양상추 품종 개량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상추 품종 개선 사업은 대표적 양상추 재배 지역이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매년 현장에서 지켜보던 광양동부농협 직원들이 생각해낸 사업이었다.

양상추는 대개 8월께 파종해서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지는데, 1970년대 국내에 들어온 현재 품종의 경우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늦더위가 오래 이어지는 최근의 기후에 맞지 않아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생육환경이 바뀌면서 병충해 등에 취약하다보니 매년 오르는 생산비 만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양상추는 속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결구'가 되어야 상품성이 생기는데, 현재 품종은 고온·저온기에 결구 현상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 결구란 상추의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걸 말한다.

광양동부농협은 결국 봄·가을 고온 등 최근 이상 기후에 적응력이 좋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도입해야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협 전남본부와 품종 개선에 뛰어들었다. 신품종으로 재배하면 기존 품종보다 생산량이 150% 이상 증가한다는 게 광양동부농협 박대광 경영기획실장 설명이다. 오랜 기간 같은 품종으로 재배 경험을 쌓아온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종자 구입비가 기존 품종에 견줘 2배 가량 비싸다보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품종 개선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광양동부농협은 이같은 점을 감안, 농협 전남본부와 협의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역 조합의 여건 상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아 광양시를 찾아 재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 신품종 종자를 보급해 농가들이 생산·출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조속한 종자 구입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정태 광양동부농협 조합장은 "기후 변화 대응력이 강한 품종으로 개선해 재배 품종 단일화가 이뤄지면 농가가 전체적으로 고품질 생산 기반을 갖추게 돼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젊은 청년농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머무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정란 이식 1.5배 비싼 한우 생산

구례축협…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유전자 개발용 암소 21마리 확보
지난해 20개 농가에 수정란 공급
가격 폭락 위기의 한우 농가 희망

최정범 구례축협 조합장(사진 가운데)이 구례축협 생축장에서 사육중인 한우를 살펴보고 있다.

구례축협 직원들은 464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생축장을 둘러볼 때면 뿌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자를 보유한 암소 21마리(공란우)를 유전자 개발용으로 확보해 키우고 있어서다.

이들 소에서 난자를 채취, 얻어낸 수정란을 지역 농가에 이식하게 되면 조만간 지역 내 우량 명품 한우 생산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료값은 끊임없이 오르는데, 소값은 오히려 떨어지다보니 소를 계속 키워야할 지 여부가 요즘 한우 사육농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이다.

힘들게 키운 만큼 제 값을 받는 소를 안정적으로 키워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반이 갖춰지면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구례축협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생산한 한우는 월등한 품질로 1.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한다.

수정란 이식이란 유전 능력이 좋은 우량 암소(공란우)에서 채취한 난자와 우수 정액을 체외수정해 얻어낸 우량 수정란을 번식우(대리모)에 이식해 유전 능력이 뛰어난 초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보증씨수소는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정액을 공급하는데, 당첨 경쟁률도 수십 대 1이 넘을 정도로 구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정란 이식은 초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다, 훨씬 높은 소값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조구훈 구례축협 전무 설명이다.

구례축협은 이같은 점을 감안, 유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자를 보유한 암소 21마리(공란우)를 유전자 개발용으로 확보했다.

한 마리의 우량 암소에서 1회 채취할 수 있는 4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21마리에서 연간 1680개의 난자를 얻어낼 수 있다.

지난해 구례축협은 200개 수정란을 생산, 지역 내 20개 농가(170마리)에 공급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0개의 수정란을 지역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처음 태어난 초우량 송아지의 발육 상태는 "눈으로도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김찬선 구례축협 경제팀장 얘기다.

최근 2년 간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태어난 한우 43마리를 분석했더니 암소(20마리), 수소(10마리)가 전능력 우수형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35% 정도인데다, 수정란을 1회 이식하는 데 부담하는 농가 비용이 50만원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구례축협과 농협 전남본부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단 시술 비용을 절반 가량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수태율이 관건인데, 수태율을 높이려면 유전자가 좋아야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례축협은 이런 점을 들어 정부와 전남도, 구례군 등과 협의해 20억원 규모의 수정란 이식센터를 조성, 본격적인 우량 한우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정범 구례축협 조합장은 "한우의 개량을 통한 우수한 유전자원을 많이 확보해 지역 한우농가에 보급,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한우 사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천터미널 복합화, 속도감 있는 행정 절실"

광주상의 입장문 발표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광주신세계·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기업 친화적 도시로 평가 받기 위해선 행정의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상의는 16일 한상원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제출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단순한 터미널 재정비를 넘어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소비·문화·관광의 중심축을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광주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거점인 광천동 유스퀘어 일원이 도심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총 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단일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면서 "특히 지난 2015년 행정 절차와 사업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광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복합 개발에 이은 '두번째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광주신세계와 광주시가 현재까지도 본협상을 본격화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한 행정적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또 "광주가 청년 유출, 소비 침체,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비 기반 확충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광주시와 관계기관이 사업의 협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한-베트남 과학·교육·중소벤처기업 교류 협의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공〉

광주전남벤처협회, 베트남 교류 협의회 성료

글로벌 진출·인력 양성 발판 마련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벤처협회)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과 손을 맞잡았다.

벤처협회는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한-베트남 과학·교육·중소벤처기업 교류 협의회'를 열고 5개 기관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는 벤처협회의 캄보디아·베트남 글로벌 진출 투트랙 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한-베트남 과학·교육과 중소벤처기업 교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테크노파크, 베트남 동남아과학교육연구원, 베트남 Ocean Visa 교육원 5개 주요 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술·기술·중소벤처기업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연계 ▲학생 연수와 학위 취득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선도 등이다.

김현수 벤처협회 회장은 "최근 2년 동안 광주테크노파크 등 광주·전남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거점 국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해 왔다"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투트랙 진출 전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모간스탠리, 한국 성장률 1.0%로 낮췄다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또다음 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성장을 위해 합의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4조 육박…역대 최고

은행·보험·금투 실적 개선 덕택

금융지주회사들이 작년 거둔 순이익이 24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연결 기준)'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8478억원으로, 전년(21조 5246억원) 대비 2조3232억원(10.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2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3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28억원(6.3%) 늘어났고, 보험이 5516억원(16.5%), 금융투자가 4225억원(15.2%) 증가했다.

반면 여전사 등은 1591억원(-5.8%) 감소했다.

권역별 이익(개별당기순이익 기준) 비중은 은행이 59.8%로 가장 높고, 보험 14.3%, 금융투자 11.7%, 여전사등 9.4% 순이었다.

작년 말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7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3천530조7천억원) 대비 224조원(6.3%) 증가했다. 자본 적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67%, 14.55%, 12.84%으로 전년 말 대비 모두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비율은 모두 상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7.43	(-29.98)
↓ 코스닥	699.11	(-12.81)
↓ 금리(국고채 39년)	2.351	(-0.048)
↓ 환율(USD)	1421.90	(-3.60)

〈오후 4시 38분 기준〉